

‘착한 가격’으로 믿고 다시 찾는 축제, 문화관광축제가 앞장선다

-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 대상 간담회 진행,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 및 서약
- 7월 18일부터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우수 축제 인플루언서 홍보 지원
- 바가지요금 논란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 및 지원 제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7월 5일(수),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먹거리 가격 관리로 호평을 받은 축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의한다. ‘착한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바가지요금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식도 진행한다.

* 문화관광축제: 지역 관광자원,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특색있는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86개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결의, 축제에 대한 부정 인식 확산 방지

먼저 무주 산골영화제, 강경 젓갈축제 관계자가 먹거리 가격 관리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가격 캠페인’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도 공유한다.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축제 먹거리 바가지요금 근절도 약속한다.

많은 축제 주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인 만큼, 바가지요금 현안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의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축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축제 주관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7월 1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문화관광축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바가지요금 논란 축제는 지원 대상 제외

7월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가 시작될 예정이다. 축제 주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제공,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문화관광축제’가 아닌 일반 지역축제들도 먹거리 가격과 사진을 동일 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문화관광축제 세 곳에는 인플루언서 출연 콘텐츠를 제작해 축제 기간 전부터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관광축제의 수용태세 부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음식을 비롯한 판매 품목 가격을 세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예정된 '24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위한 심사'에서 반영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는 축제는 '24년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이번 결의 서약을 통해 문화관광축제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문체부도 축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간담회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책임자	과장	안미란 (044-203-2851)
		담당자	사무관	이솔 (044-203-285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